

심사위원이 출품 논란... "혈세 퍼주기냐" 비난

남구청사 걸릴 미술작품 심의 연기된 이유는

5억대 작품 선정 과정 등 불투명...15일 재심의기로

올 3월 리모델링 후 문을 여는 광주 남구청 신청사에 내걸릴 미술작품 심사 일정이 지연 연기를 했다. 지난 7일 열린 광주시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남구청의 주먹구구식 작품 추천 과정 및 가격 책정 등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심사위원들은 충분한 재검증을 거쳐 15일 재심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청이 심사를 의뢰한 작품은 69점. 모두 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 전체 구입가만 5억1827만4000원에 달한다. 작품은 국내외에서 독특한 창작 세계를 확보하고 있는 중진부터 신진 작가 등이 고루 분포돼 있어 열악한 지역 미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작가 및 작품 추천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됐으며 작품 가격 책정 과정도 납득할 수 없어 자칫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게 광주시 미술작품 심의위원의 설명이다.

◇심사위원이 자신 작품 심사? = 남구청이 올린 추천 작품에는 현재 광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순이 광주미술협회장(시간으로의 여행·100×65cm·700만원), 작가 정춘표씨(물처럼 바람처럼·175×52cm·700만원), 김영희 환경조형회사 디아트 대표(space com-

position #102·100×100cm·700만원), 윤해옥 송원대 강사(DREAM·162×130cm·7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작품을 놓고 구입 가격이 적정한 지, 작품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남구청이 사전에 광주시 미술작품심의위원들의 명단을 확인한 뒤 작품을 추천, 선정하는 치밀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인 사람은 재직기간 중 광주시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출품을 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들어 해당 심사위원들의 작품

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추천 과정, 심사 기준도 '불투명' = 광주시 미술작품 심의위원인 조영표 광주시의원은 "이는 사람만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광주 미술협회 소속 1700여명의 회원 작가들 중 왜 69명만 선정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공개 모집 과정 없이 추천위원들을 통해 작품을 선정하면서 투명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예가다.

열악한 지역 미술시장에서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남구청이 주먹구구식 밀실 행정으로 의혹과 불신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5억 혈세 '퍼주기' = 광주시 미술작품 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3시간 가까이 진행하면서 집중적으로 제기

한 지적이 구입 가격의 투명성 부족이다. 조 의원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구입 가격을 책정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역 화랑계에서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작품이 적지 않은데다, 작가간 경력·시장성 등을 감안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미술협회 임원들이나 남구청과 연관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높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인용 남구의회 의원은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미술 시장에서 200만원도 안되는 작품을 70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5억원이 넘는 지역민들의 세금을 '선심성' 작품 구입에 쏟아부어 야 되느냐는 것이다.

/영세열기자 h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1분** **해질녘 08시 41분**
해질녘 18시 13분 **달일출 21시 29분**

수도관 동파주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았다.

광주	맑음	-4/6°C
목포	맑음	-4/4°C
여수	맑음	-1/5°C
나주	맑음	-6/6°C
완도	맑음	-3/5°C
구례	맑음	-7/6°C
강진	맑음	-6/5°C
해남	맑음	-5/5°C
장흥	맑음	-6/6°C
순천	맑음	-7/6°C
영광	맑음	-7/4°C
진도	맑음	-3/5°C
전주	맑음	-5/5°C
군산	맑음	-6/4°C
남원	맑음	-8/5°C
옥산도	맑음	1/5°C

〈오전〉 바다 **동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관심	매우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오후〉 바다 **동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목포	04:04	09:1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16:29	21:38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m	여수	11:11	04:4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23:25	17: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침기상청>**

날짜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날씨						
최저/최고	-3/7	0/4	-3/5	-2/8	5/6	-3/1

명퇴 신청 박표진 광주시 부교육감, 장휘국 교육감에 쓴소리

“뜰에 갇혀 교육수요자 요구 부응 못해”

“입시라는 현실이 있는데 특정 프레임(뜰)에 갇혀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미흡했다.”

박표진(58·사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2일 진보 성향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장년을 2년10개월 남겨두고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박 부교육감은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의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발언은 큰 주목을 받았다.

박 부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부모가 편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거나 무상급식을 원만히 추진하는 등 장 교육감의 업적이 많다”며 “하지만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가슴 터놓는 소통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책 결정이 공조적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고, 결정된 사안을 형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철학이 다른 직선제 교육감 아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전에는 큰 목소리 내는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부교육감은 “광주는 교육만이 살길이다.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봉사해주길 바란다”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내년 광주시 교육감 출마설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부교육감은 강진 출신으로 1974년 공직에 입문해 교육인적자원부 홍보기획담당관·민원조사담당관·교원단체지원과장, 한밭대 사무국장, 제주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오는 28일 퇴임식 없이 명예퇴직한 후 3월부터 지역 사업대에서 강의를 하며 교육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눈내린 전남대 교정

광주·전남지역에 눈이 내린 12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교정에서 학생들이 눈발 사이로 걸어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린이 눈으로 본 5·18

창작동화 '자전거' 출간

18일 출판보고회

어린이의 시선에서 5·18을 재조명한 창작동화 '자전거(사진)'가 출간됐다.

5·18기념재단은 12일 기념재단이 기획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한 장편동화 '자전거'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는 초등학교 5학년 소녀 '꽃님이'의 시선을 통해 어떤 정치적, 역사적 편견 없이 1980년 5월의 광주를 순수하게 바라본다. 꽃님이와 동행하는 '자전거'는 세계와 꽃님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를 상징한다.

작가는 두 발로 쉬지 않고 페달을 밟을 때 비로소 달리는 자전거처럼 역사 또한 사람에 의해서 한 장, 한 장 쓰여지고 그렇게 쌓인 역사가 모여 오늘을 이룬다는 주제를 통해 '자전거'를 통해 얘기

했다. '자전거'에는 본문과 함께 초등학교 현장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본문 활용해 연극해 보기'가 첨부돼 있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꽃을 좋아한 한 소녀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페이지를 생성하고 정지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념재단은 18일 오전 11시30분 광주NGO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는 박상률 작가와 시교육청, 5월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판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신청하세요”

18일부터 주민센터·인터넷 접수

18일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이 시작된다. 대부분 시·도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인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을 앞두고 지원방법을 12일 안내했다. 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의 학부모 또는 학생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사이트는 '원클릭 교육비신청시스템'(http://onedclick.mest.go.kr)과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등 2곳이다.

/연합뉴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파워리버캡!

!그린알로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그린파워리버캡 출시!

그린파워리버캡은 100% 천연식물 밀크씨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 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간 건강지표를 나타내는 효소인 GOT, GPT 수치개선에 도움을 주며, 천연원료 비타민, 미네랄(11종)이 에너지 대사 활성을 도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헛개나무열매 추출물, 민들레 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 추출물, 운지버섯다실체 추출물, 울금 추출물, 효모추출물(글루타치온) 등 부원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1%유지도 함유하지 않은 정제형 복합기능성 제품입니다.

섭취대상자

-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간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
- 잦은 회식과 야근에 늘 지쳐있으신 분!
- 업무량이 많아 피로하신 분!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그린알로에 제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상담실 080-234-6588